

기저전위를 통한 자기혈관 동정맥루

순천향대학병원 이식 혈관외과

송단, 윤상철

Basilic Vein Transposition for Arteriovenous Hemodialysis Access

Dan Song, Sangchul Yun

Department of Surgery, College of Medicine, Soonchunhyang University

Propose: 투석환자에 있어서 합병증이나 비용절감면에서 인조혈관 동정맥루 보다 자기혈관 동정맥루가 더 많이 선호된다. 특히 만성 신부전환자에 대한 처음 동정맥루 형성에서 자기혈관을 이용하는 것은 K/DOQI guideline에서 강조되었다. 이에 본원에서 시행한 기저정맥 전위 동정맥루 형성술에 대해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고자한다

Method: 2005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상박부 기저정맥 전위 동정맥루를 시행 받은 환자 319명을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, 만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질환, 일차 개통율 및 2차 개통율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수술전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확장이 잘 되며, 그 크기가 동맥문합부에서 적어도 3-4 mm 정도 되는 것과 중심정맥의 폐쇄증이 없는 정맥으로 하였다.

Result: 총 319명의 환자 중 1개월 이내 추적관찰이 안된 환자 9명을 제외한 3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총 300예의 평균연령은 57.4세였으며 남자가 154명이었고, 당뇨가 있는 환자가 44.5%,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82.6%였다. 총 300예 중 먼저 상완에 동정맥루를 만들어 정맥을 키워서 전위를 시행한 환자는 10예였으며, 18예에서 기저정맥이 짧아 약 10정도의 인조혈관을 이용한 대치술을 시행받았다. 평균 기저정맥의 크기는 6.3 mm 정도 되었고 문합부의 크기는 7.2 mm 정도 되었다. 합병증은 24명의 환자에서 창상부위의 혈종 및 장액종 이었으며 이중 20명에서 절개 및 배농이 필요했다. 5명의 환자에서 스틸증후군이 생겨 2예는 문합부위 크기를 줄임으로서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며 나머지 3예에서는 DRIL술식을 시행하였다. 총 99예의 협착으로 경피적 풍선확장술(PTA)을 시행 받았으며 이중 swing point stenosis가 55%로 가장 많았다. 중심정맥협착은 20례로 모두 경피적 풍선확장술을 받았다. 1차 개통율은 1,3,5년에 69%, 53%, 44%였으며, 2차 개통율 99%, 97%, 95%였다.

Conclusion: 기저정맥 전위 동정맥루가 비록 Brescia-Cimino fistula보다 개통율이 좋지는 않지만 첫 동정맥루로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. 몇가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혈액투석용 혈관확보가 중요한 만성신부전환자에게서 2차 개통율이 인조혈관보다 높고 합병증이 낮으며,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를 만들기 전 한번 더 혈관이 확보되는 이 술식을 시도하는 것을 적극 권하며, 다만 수술전 정확한 정보를 통한 혈관상태를 잘 파악한 후 동정맥루를 만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.

Key Words: 혈액투석, 기저정맥 전위, 동정맥루

Hemodialysis, Basilic vein transposition, AVF